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09. 30

CONTENTS

〈요약〉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현황 및 진단
4. 충남 수산산업 발전방안
5. 결론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중화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sdart@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전통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검토하고 발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전통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현황 분석 및 진단,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충남은 어업가구 전국 2위, 어업인구 전국 3위이나, 어업 생산량은 전국 6위, 생산금액은 전국 6위 랭크
 - 충남 연안 시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성인남녀성비 낮음
 - 충남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없으며 대천항에 양식 수산물 중심의 유사도매시장 형성
 - 충남에는 수협 회원조합 8개소에 총 18개소의 산지위판장 및 시설 위치
 - 충남의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전국 7위 랭크
 - 대중국 수출용으로 해삼, 김, 굴 등에 대한 전략적 육성 필요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 전무
-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산산업의 발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비전 : 지역 수산산업의 가치 창출 및 미래산업화
 - 목표 :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전략 :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진취적인 해외시장 공략, 가치있는 수산소비 촉진

배경 및 목적 ◀

01

- 최근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유통·가공·수출 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수립하여 품목별 특성화 대책 수립,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개선 및 현대화, 수산물 직거래 확대,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수산물 수급관리 및 관측 강화 추진
 - 201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보면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수출기반인 어촌사회 활력 증진 등 수출 중심의 어업인 소득 정책 강화
- 최근에는 한·중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대중국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한·중 FTA에서 해삼, 김, 미역, 전복 등 62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
 - 충남에서도 해삼, 김, 전복 등의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충남에서도 지역 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및 시장·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3농혁신”을 통하여 바지락, 해삼, 김, 참굴을 “충남 4대 명품 수산물”로 선정하여 전략적 육성 중
 - 2015년 7월부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방안 협의회” 개최를 통한 “수산물 유통확대 TF팀” 운영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수산물 유통·가공 TF팀” 운영 중
 - “수산물 유통확대 TF팀”에서는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추진, 학교급식 등 수산물 로컬푸드 실현, 어업·어촌 6차산업화 및 수산산업 육성 등 논의

- ◎ 그러나 충남에서는 아직까지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 및 집중이 부족함
 -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2014)”, “한·중 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2015)”,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2016)”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나 범위 및 비중이 낮음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전통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충남의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발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

- ◎ 본 절에서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언급한 기존 선행연구(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2014)”,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 방안 연구(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2015)”,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2016)”

1)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관련 계획 검토

①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전략 (2014)

[필요성]

- ◎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수산물 유통 구조
 - 수산물의 유통마진은 약 55%로 어가 수취가격이 낮은 매우 비합리적 구조
 -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구 심화
- ◎ 다발성 FTA 체결과 TPP,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국내 수산물의 시장경쟁력 약화
 - 수산물 금액: 약 22억 달러(2004년에 비해 약 60% 상승)
 -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패류, 어류의 국내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추진과제]

-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 충남 4대 수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계열화
-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 어촌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연안 수산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실현,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②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2015)

[필요성]

- 한중 FTA에 대비하여 국내 시장경쟁력 제고 및 중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 한·중 FTA에서 해삼, 김, 미역, 전복 등 62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

[추진과제]

-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충남 명품 4대 수산물의 내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해삼 클러스터를 통한 중국시장 교두보 마련
 -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바지락 산업의 전략적 육성
 - 고급 식재료로서 갯벌 참굴 육성
 - 수출용 전복 산지로서 위상 강화
-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산지중심의 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개발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③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2015)

[필요성]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바지락, 참굴, 김, 해삼)의 안정적 생산과 규모화를 통한 공급체계 확립 및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확충 필요
 - 먹거리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요구 증대
 - 지역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수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가소득 향상, 고용창출 등의 효과 기대 가능
 - 충남에서는 조미김, 어리굴젓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수산물 향토음식, 로컬푸드 인지도 약함
- 충남 염전은 최적의 천일염 생산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어 소금 명품화에 유리
 - 광업물에서 현대인의 천연 건강보조 식품으로 인식 변화 유도 필요
- 한중 FTA 등 수출입 교역 여건 변화 대응 체계 강화
 - 정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용 브랜드 “K-fish”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
 - 2015년 국립수산물과학원 내 “할랄(HALAL)” 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산식품의 이슬람 수출 지원 강화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의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중국 시장정보 공유
 - 수출지원센터, 앵커숍 운영 등 현지 지원조직 확충

[추진과제]

● 충남 4대 전략품종 중점 육성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해삼 특화단지 조성, 김 클러스터 조성, 갯벌참굴 양식 육성

●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수산식품거점단진(FPC) 조성
- 수산물위판장시설, 저온저장시설, 간이냉동냉장시설, 젓갈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지속적인 추진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추진
-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산식품 개발 및 육성
- 수산물 생산 및 가공관련 인증 지원
- 충남 수산물의 신선도 및 상품가치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인프라 조성

● 수산물 로컬푸드 개발 및 보급

- 충청남도 대표 향토음식 확산 및 보급
- 충청남도 수산물 요리경연대회 연례 개최
- 수산물 로컬푸드 연구개발 지원

● 천일염산업 명품화 개발

- 산지가공시설 및 처리·저장 현대화
- 천일염 이력관리, 유통 및 공급기능 강화로 안전 수산식품 체계 구축
- 천일염 산업단지 조성(서산, 태안, 서천 등)
- 천일염 전시공간 및 체험센터 등 해양관광산업 연계

●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가치화

- 새우젓갈, 김, 감태, 서산어리굴젓 등 지역별 특산품 명품화 사업
- 충남 및 지역별 대표 브랜드 제작 및 홍보 강화

● 수산물 수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 중국시장 등 수출기반 및 전략상품 마케팅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홍보·판촉 강화
- K-Seafood 수출 지원
- 해외 전자직거래 활성화 사업
- 수산물 수출 활성화 전담팀 운영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국내 수산물 수출거점 무역항 조성

④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2016)

[필요성]

- 수산물의 특성 상, 부패속도가 빨라 이를 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 설립 필요
-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물류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 저장, 가공 등 기능 극대화 도모를 위한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필요
- FPC 사업과 연계하여 산지 위판장, 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 자매도시에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도어교류 확대
- 수산물 안전성 및 유통·위생 관리 강화
 -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하여 소매단계의 위생 및 유통관리가 중요하나 대부분의 소매점은 비위생적인 유통환경에 노출
 - 수산물 품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물 HACCP 지원 필요

[추진과제]

- 수산물 산지가공센터 구축
 - 어패류가공시설, 해조류가공시설, 천일염 가공시설, 젓갈류 가공시설 등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 HACCP 설비, 수산물포장 설비, 건축동 등에 대한 설계 및 시설비 지원
-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 시·군별 산지수산물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건립 등
 - 가공기자재, 공동 R&D, 판로개척,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 경매·보관·판매 등 위판기능과 배송·판매 기능을 갖춘 유통복합센터 건립
- 자매도시 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충청남도 수산물 장터 위원회” 설립 및 부스설치, 홍보 등 지원
- 수산물 위생유통 표준매장 모델 개발
 -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위생적인 수산물 전문 소매점 표준모델 개발
- 수산물 위생설비(HACCP) 확충
 - HACCP 설비, 수산물 포장설비, 건축동 등에 대한 설계 및 시설비 지원

2)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관련 계획 분석

●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과 관련한 계획을 정리하면 각 분야별로 아래 <표 1>과 같은 주요 이슈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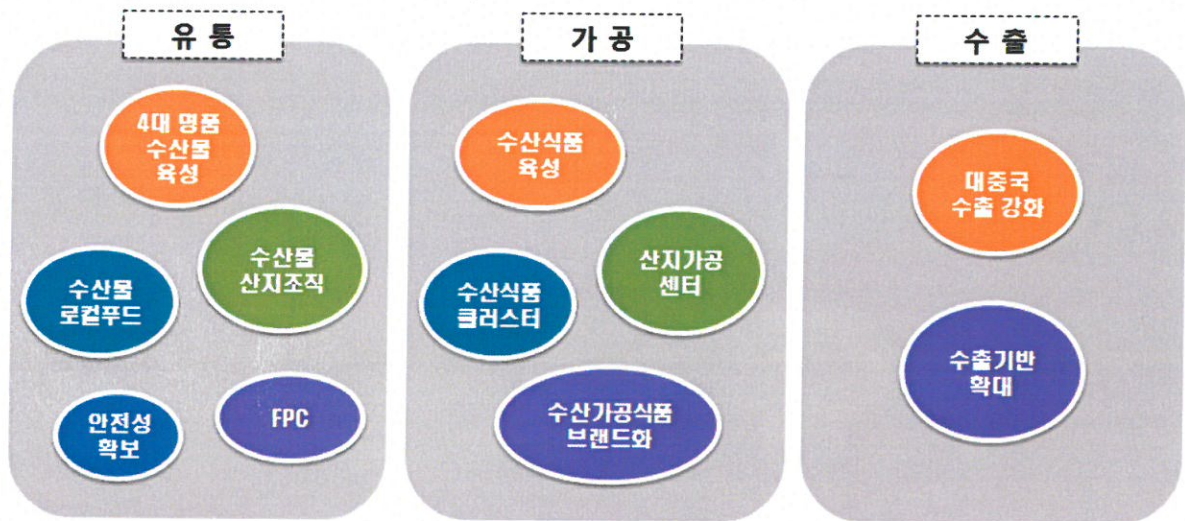
- 유통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수산물 산지조직 육성 및 로컬푸드 추진,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수산물 산지거점센터(FPC) 조성 등
- 가공 : 6차산업화 추진, 수산식품 산지가공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수산가공식품 브랜드화 추진 등
- 수출 : 대중국 수출기반 확충, 수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표 1]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관련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계획 명	유통	가공	수출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전략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한중 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4대 전략품종 중점 육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수산물 로컬푸드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일염산업 명품화 개발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수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자매도시 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수산물 위생유통 표준매장 모델 개발 수산물 위생설비 (HACCP)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산지가공센터 구축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선정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함

- 유통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방안, 수산물 산지조직 육성,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방안,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산지거점센터(FPC) 운영 방안,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 가공 :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의 수산식품 육성 방안, 수산식품 산지가공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 수산가공식품 브랜드화 방안
- 수출 : 대중국 수출 강화 및 기반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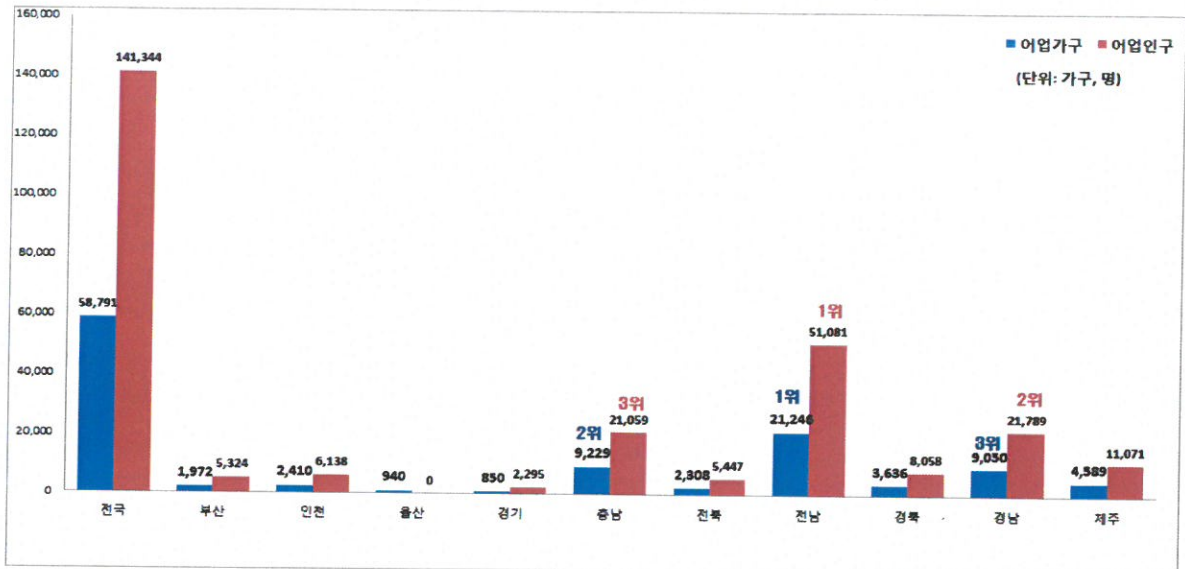
[그림 1]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관련 계획의 주요 Key word

1)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현황

(1) 충남 수산업 일반현황

- 현재 충남에는 7개의 연안 시군이 있으며, 8개소의 지구별 수협, 165개소의 어촌계, 115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음(2015년 기준)¹⁾
 - 연안 시군(7개)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지구별 수협(8개소) :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서산수협, 당진수협, 서천서부수협, 대천서부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도수협
 - 어촌계(165개소) : 보령시(25개소), 아산시(1개소), 서산시(17개소), 당진시(7개소), 서천군(19개소), 홍성군(7개소), 태안군(89개소)
 - 자율관리공동체(115개소) : 보령시(20개소), 아산시(1개소), 서산시(10개소), 논산시(1개소), 당진시(11개소), 서천군(10개소), 홍성군(4개소), 예산군(1개소), 태안군(57개소)
- 충남은 2014년 기준 어업가구 전국 2위(15.7%), 어업인구 전국 3위(14.9%) 랭크<그림 2 참고>
 - 어업가구 : 전남 > 충남 > 경남 > 제주 > 경북
 - 어업인구 : 전남 > 경남 > 충남 > 제주 > 경북

1) 충청남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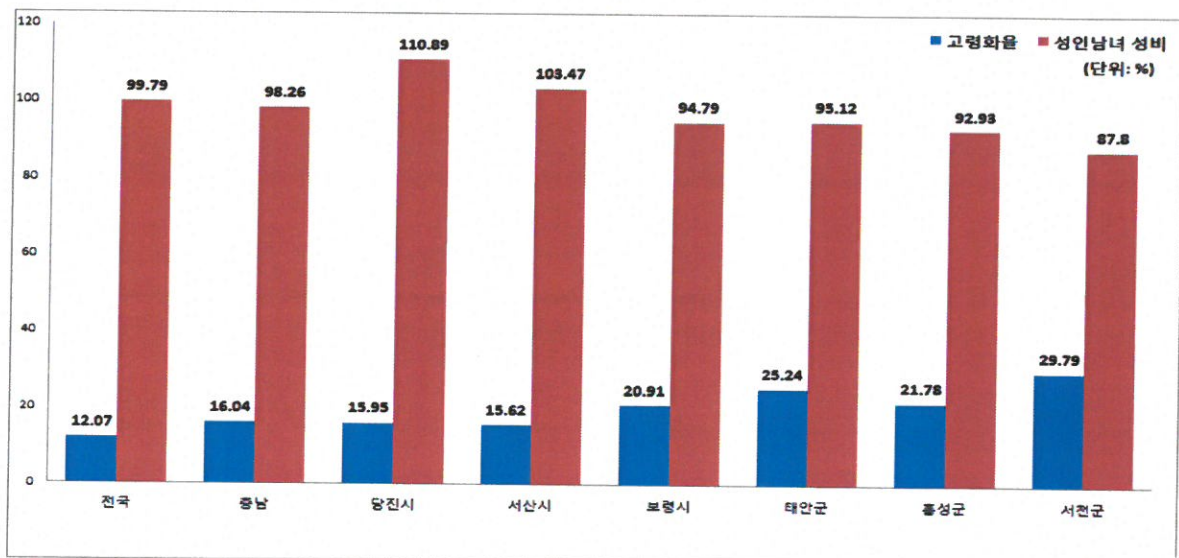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2]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2014년)

◎ 충남 연안 시군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인남녀성비는 전국평균보다 낮음<그림 3 참고>

- 충남 연안 시군의 고령화율은 16.04%로 전국보다 약 4% 높음
- 성인남녀성비는 98.26%로 전국보다 낮음
- 가장 고령화된 시군은 서천군, 태안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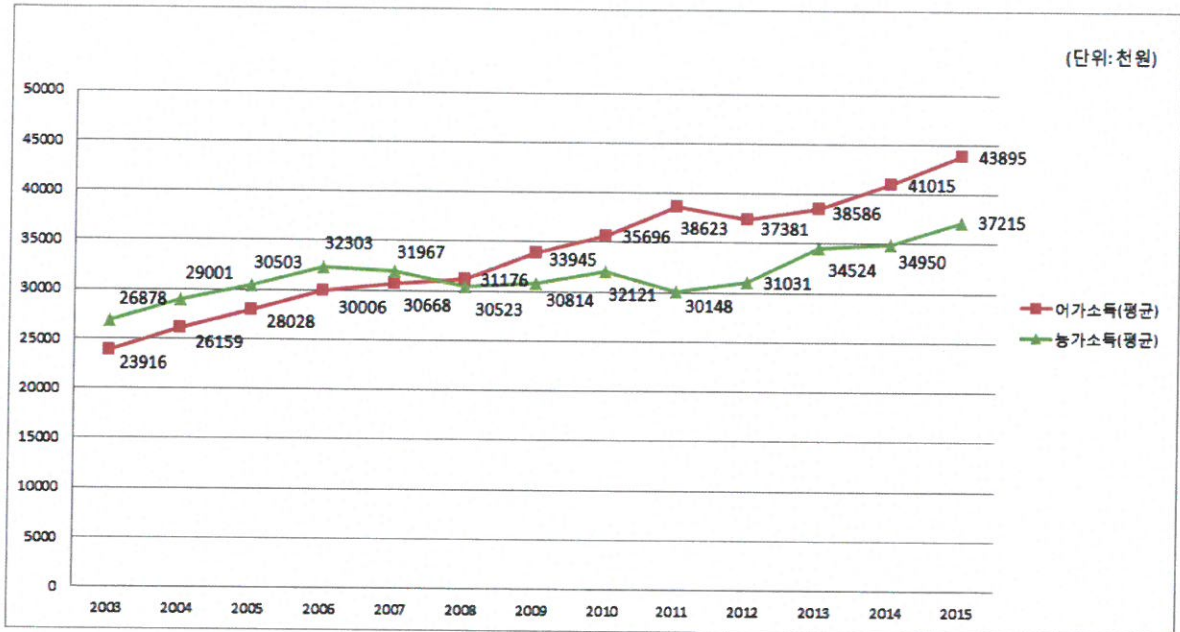
주1 : 성비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의 여성 100당 남성의 수

주2 : 고령화율은 2014년, 성비는 2010년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3] 충남 고령화 및 성비

- 전국적으로 평균 어가소득이 평균 농가소득보다 약 6.7백만원 높음<그림 4 참고>
 - 2008년을 기점으로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추월하고, 현재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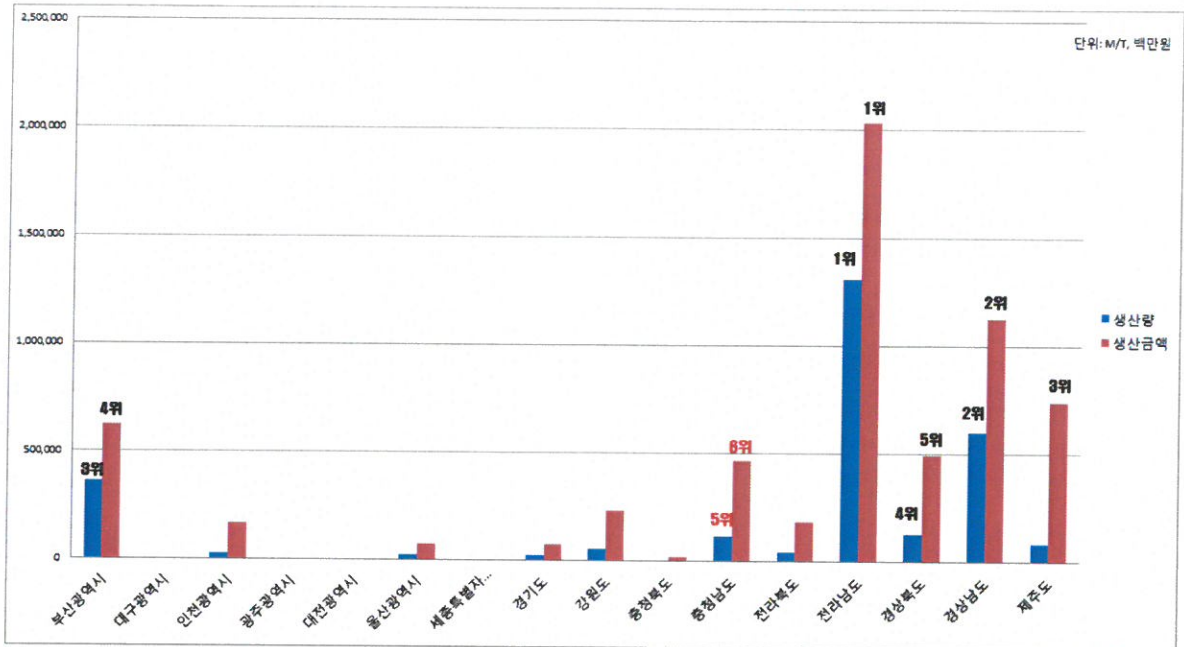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그림 4] 농가 및 어가 소득 비교 (2015년)

- 충남은 어업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 5위, 생산금액 기준으로 전국 6위 랭크<그림 5 참고>
 - 2015년 기준 국내 어업생산량 2,764,11톤, 생산금액은 6조2천억원²⁾
 - 이 중, 충남은 어업생산량 116,918톤, 생산금액 4천7백억원 기록하여 어업 인구(3위)에 비해 생산량(5위), 생산금액(6위)이 적음
 - 전남은 생산량 1,306, 438톤, 생산금액 2조원 기록
 - 경남은 생산량 599,397톤, 생산금액 1조1천억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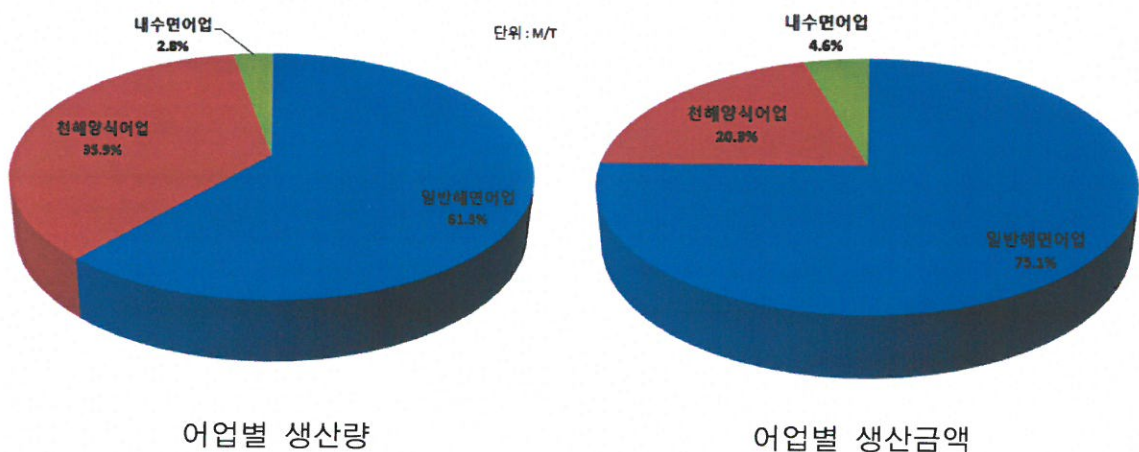
2) 원양어업 제외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5]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2015년)

- ◎ 충남의 어업은 <그림 6>과 같이 일반해면어업 > 천해양식어업 > 내수면어업 순임
- 생산량 측면에서 일반해면어업 71,630톤(61.3%), 천해양식어업 41,956톤(35.9%), 내수면어업 3,332톤(2.8%)
 - 생산금액 측면에서 일반해면어업 351,018백만원(75.1%), 천해양식어업 94,827백만원(20.3%), 내수면어업 21,278백만원(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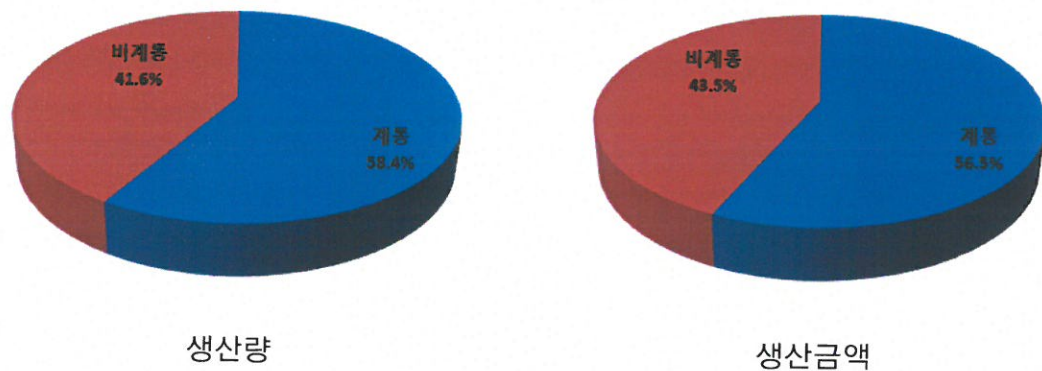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6] 충남의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2015년)

(2) 충남 수산물 유통산업 현황

- ◎ 충남에서는 수산물 유통관련 시설이 거의 없고, 계통출하의 대부분은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위판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수산물 도매시장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 충남에서는 양식산 수산물(활어 중심)의 유사 도매시장이 대천항에서 운영 중
- ◎ 충남 수산물의 계통출하 여부를 보면 계통출하 비중이 약 58%(생산량 기준)밖에 되지 않아 비계통출하 물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그림 7>과 같이 확인할 수 있음
 - 생산량 : 계통 68,233톤, 비계통 48,684톤
 - 생산금액 : 계통 263,815백만원, 비계통 203,309백만원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7] 충남 수산물 계통출하 여부 (2015년)

- ◎ 수산업의 주요 유통시설 중에 하나인 산지위판장은 <표 2>와 같이 충남 8개 회원조합에서 18개의 산지위판장 및 시설 보유
 - 전국적으로 수협 회원조합 78개소에서 산지위판시설 213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위판장 시설을 보유 한 곳은 171개소
 - 산지위판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

[표 2] 지역별 산지위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지역별	회원 조합 수	산지위판 시설 수	위판장			현장위판장				
			시설 보유	지정여부		시설 미보유	물양장	가두리 양식장	어촌계	기타 (선상, 뗏목)
				지정	미지정					
합계	78	213	171	165	6	42	16	7	7	12
경인	5	9	7	6	1	2	0	0	0	2
강원	9	23	23	21	2	0	0	0	0	0
충남	8	18	18	17	1	0	0	0	0	0
전북	2	4	4	4	0	0	0	0	0	0
전남	18	62	33	31	2	29	11	4	7	7
경북	9	22	19	19	0	3	0	1	0	2
경남	18	54	49	49	0	5	3	1	0	1
부산	3	12	10	10	0	2	2	0	0	0
제주	7	19	8	8	0	1	0	1	0	0

원자료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2014) 자료

자료: 박진규 외(2015)

- 지역별 산지위판장의 위판량은 <표 3>과 같으며 충남은 전국 6위(48,990톤)임
- 전국적으로 전남(382,170톤) > 경남(215,900톤) > 경북(112,968톤) > 부산(80,883톤) > 제주(64,070톤) 순임
 - 충남에서 위판량이 많은 품목은 활어, 선어, 패류임

[표 3] 지역별 및 품목별 위판량(2013년)

(단위 : 톤)

지역	계	활어	선어	냉동	패류	건어	기타
합계	998,488	135,767	353,361	63,556	45,738	47,054	353,013
경인	26,695	5,418	8,765	1,903	2,706	0	7,903
강원	32,616	12,046	19,742	5,709	361	12	746
충남	48,990	12,826	14,263	18	4,009	4,529	13,345
전북	28,196	2,719	5,834	2,209	32	536	16,866
전남	382,170	21,235	40,192	26,089	5,142	13,921	275,591
경북	112,968	27,334	75,863	9,178	417	85	92
경남	215,900	20,763	128,061	14,970	23,678	22,379	6,049
부산	80,883	18,272	15,623	0	8,976	5,592	32,420
제주	64,070	15,154	45,018	3,480	417	0	1

원자료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2014) 자료

자료: 박진규 외(2015)

- 충남 지역조합의 위판실적 순위는 <표 4>와 같이 보령수협 > 서천서부수협 > 서산수협 순임
 - 전국적으로 부산시조합이 위판량 68,016톤, 위판금액 180,680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표 4] 충남 조합별 위판실적 순위 (2013년)

(단위 : 톤,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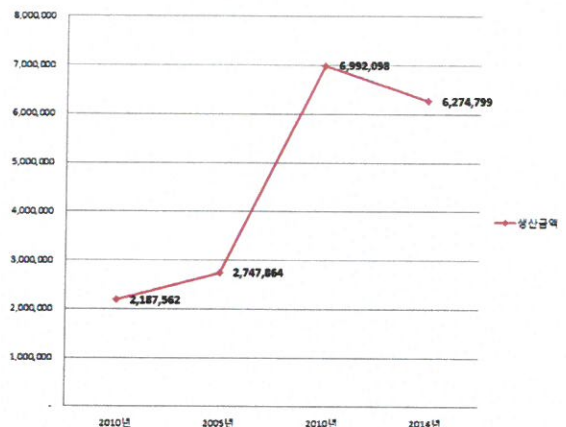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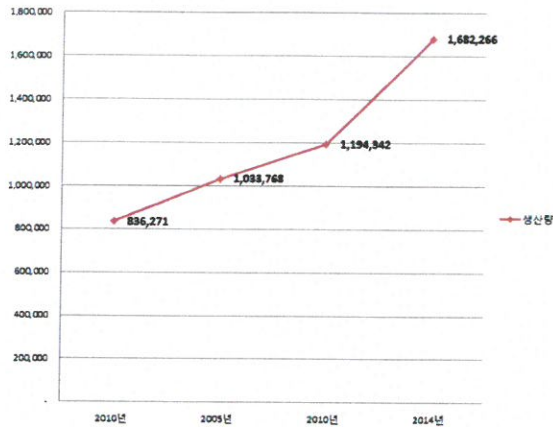
전국순위	지역순위	조합명	위판량	위판금액
13	1	보령수협	15,804	87,927
20	2	서천서부수협	15,373	59,257
27	3	서산수협	7,098	48,351
42	4	서천군수협	5,553	24,030
45	5	안면도수협	2,559	21,748
50	6	대천서부수협	1,799	18,094
65	7	태안남부수협	804	7,629

원자료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2014) 자료
 자료: 박진규 외(2015) (* 당진수협 자료 미제시)

(3) 충남 수산물 가공산업 현황

- 전국적인 수산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을 보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생산금액은 2010년에 비하여 2014년 감소하였음<그림 8 참고>
 - 2014년 생산량 1,682,266톤, 생산금액 6,274,799백만원
 -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생산량이 많은 곳은 경남(505,665톤) > 부산(412,780톤) > 전남(395,671톤) 순임
 -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생산금액이 높은 곳은 부산(1,785,422백만원) > 경기(1,276,816백만원) > 전남(1,197,342백만원) 순임
 - 2014년 기준 톤당 가격이 높은 곳은 대전(22.4백만원) > 경기(15.5백만원) > 제주(12.6백만원) > 전북(10.7 백만원) 순임³⁾

3) 가격/톤 = 생산금액(백만원) / 생산량(톤)



생산량(톤)

생산금액(백만원)

자료 : 해양수산물통계연보 각 년도, 박준모 외(2015)

[그림 8] 수산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

[표 5] 전국 수산가공품 생산량 및 생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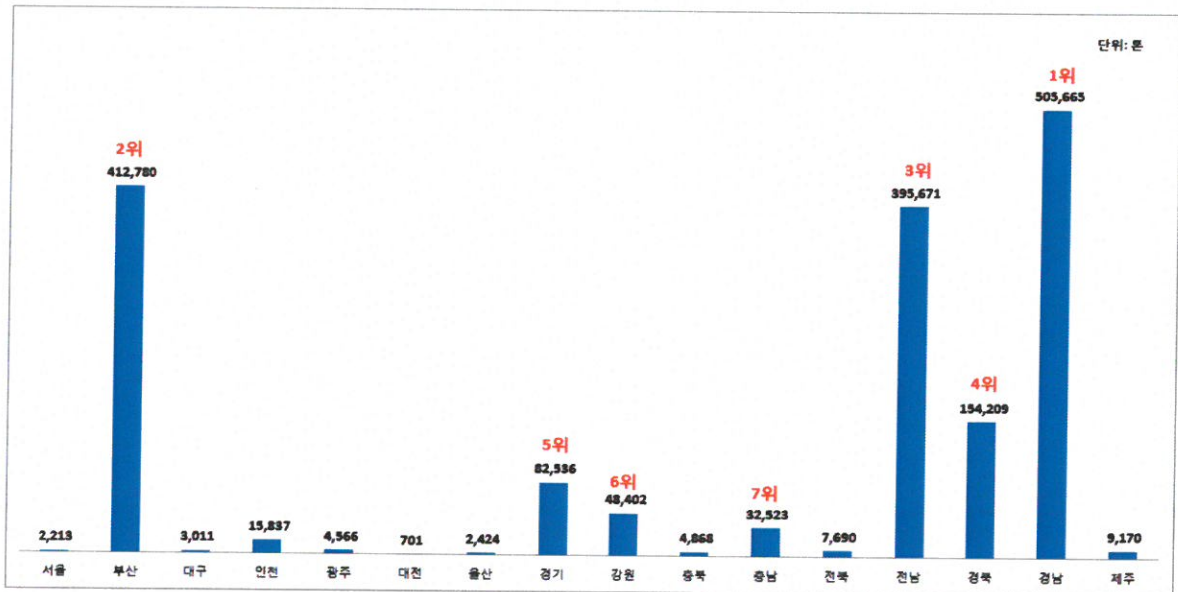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가격/톤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계	836,271	2,187,562	1,033,768	2,747,864	1,194,342	6,992,098	1,682,266	6,274,799	3.7
서울	3,446	9,695	631	7,745	2,190	14,216	2,213	15,198	6.9
부산	199,939	330,182	310,973	727,225	478,407	2,072,252	412,780	1,785,422	4.3
대구	1,968	4,902	7,848	4,254	3,296	6,835	3,011	20,883	6.9
인천	21,429	55,007	22,283	190,256	7,279	38,209	15,837	96,733	6.1
광주	5,061	12,595	0	0	4,163	10,493	4,566	12,018	2.6
대전	28	421	85	2,646	870	12,208	701	15,731	22.4
울산	8,757	19,250	4,258	19,104	2,846	12,733	2,424	21,867	9.0
경기	146,457	351,481	84,190	202,938	67,437	320,601	82,536	1,276,816	15.5
강원	81,102	150,577	50,460	229,796	36,624	201,072	48,402	259,487	5.4
충북	2,264	27,489	1,079	25,284	4,665	60,222	4,868	48,369	9.9
충남	20,427	62,499	14,504	32,645	34,303	132,856	32,523	137,830	4.2
전북	12,354	36,072	7,162	41,256	32,254	79,199	7,690	82,177	10.7
전남	90,110	430,976	217,031	698,385	234,313	1,201,644	395,671	1,197,342	3.0
경북	66,454	125,869	84,028	90,118	160,343	1,369,292	154,209	249,063	1.6
경남	162,845	499,451	212,486	400,423	144,394	1,365,606	505,665	939,914	1.9
제주	13,630	71,096	16,750	75,789	11,293	94,660	9,170	115,949	12.6

자료 : 해양수산물통계연보 각 년도, 박준모 외(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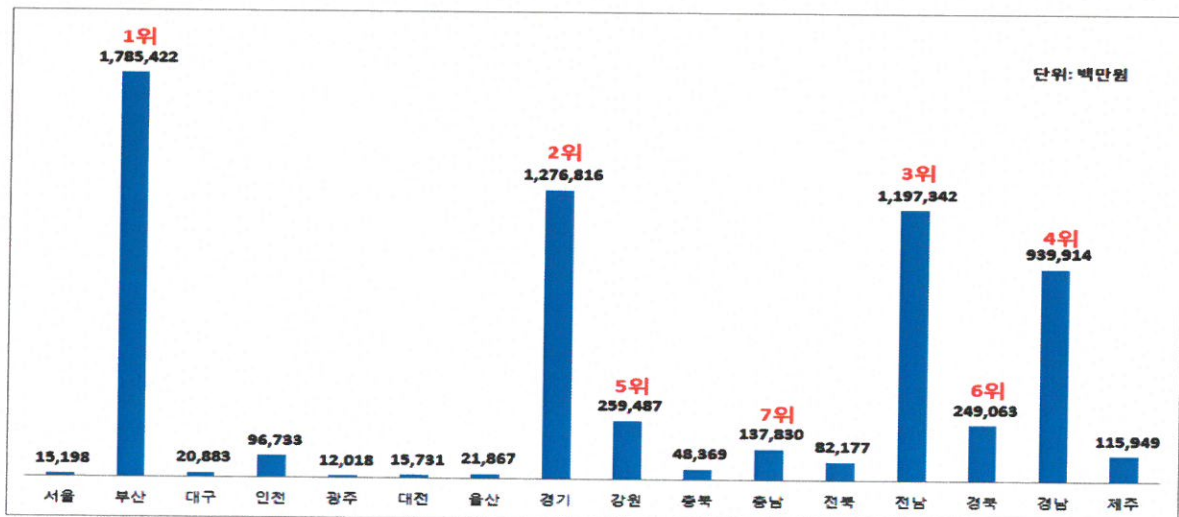
● 충남은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에서 모두 전국 7위에 랭크<그림 9, 그림 10 참조>

- 전국대비 생산량의 1.9%, 생산금액의 2.2%밖에 점유하지 못함
- 생산량대비 가격에서는 톤당 4.2백만원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
- 충남의 수산가공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으면서 타 시도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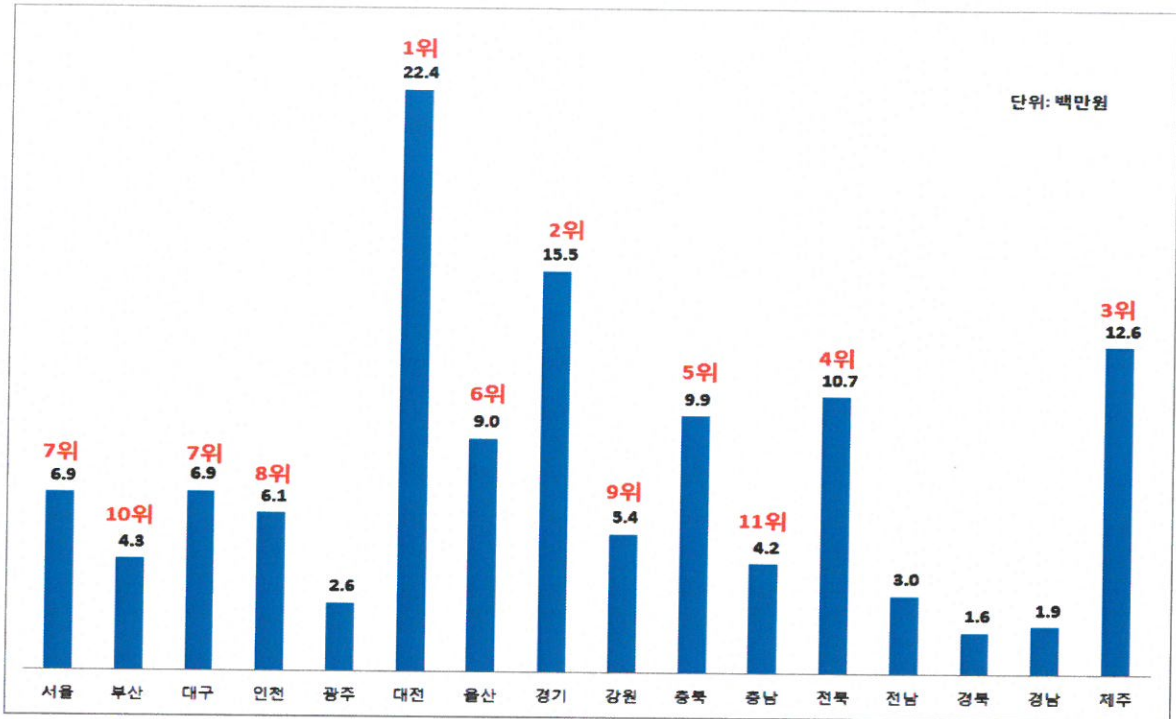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2015)

[그림 9] 수산가공품 생산량 순위 (2014년)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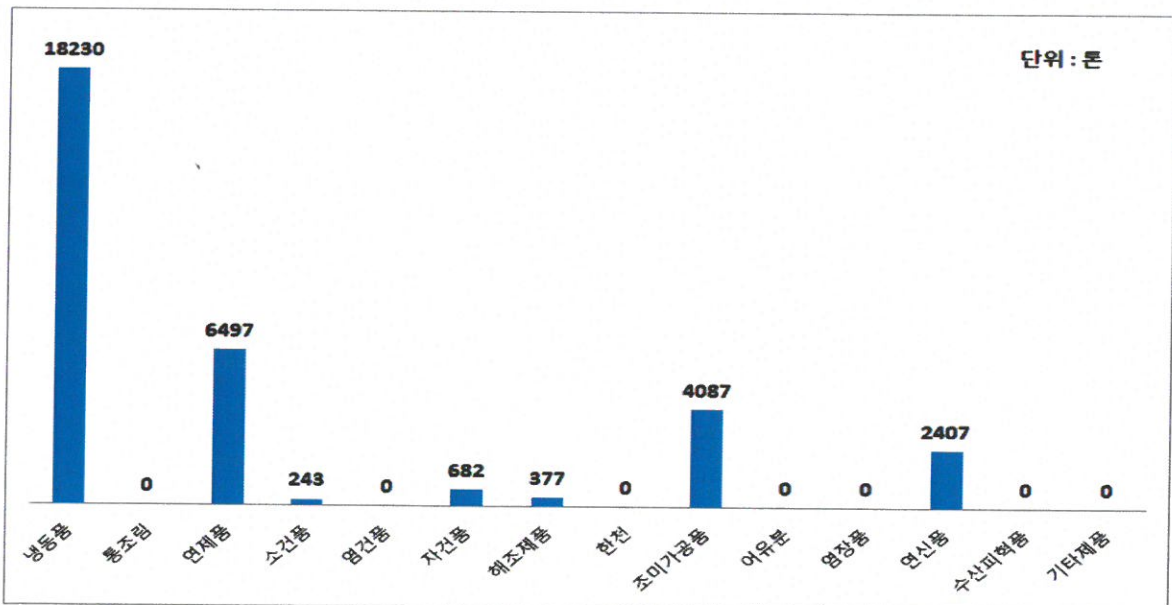
[그림 10] 수산가공품 생산금액 순위 (2014년)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201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11] 수산가공품 생산량 대비 가격 (2014년)

- ◎ 충남은 수산가공품의 주요 품목은 냉동품(Frozen), 연제품(Ground Fish Meat), 조미가공품(Flavor Seasoned), 연신품(Salted & Pickled) 순임
- 비율로 보면 냉동식품 56.0%, 연제품 20.0%, 조미가공품 12.6%, 연신품 7.4%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2015)

[그림 12] 충남 수산가공품 주요 품목 (2014년)

- 충남에서는 <표 6>과 같이 보령시(110개소), 홍성군(70개소)에 전체의 약 80%의 수산물 산지가공업체가 위치해 있음
 - 품목별로는 조미가공업체가 전체의 약 65% 점유

[표 6] 충남 수산물 산지가공업체 현황 (2014년)

(단위: 개소)

구분	계	냉동 냉장	통조림	한천	어육 연제품	건제품	염장품	조미 가공	염신평	기타
계	226	19	0	0	2	0	0	148	53	4
보령시	110	5	0	0	0	0	0	83	22	0
서산시	17	0	0	0	0	0	0	2	11	4
당진시	4	3	0	0	1	0	0	0	0	0
서천군	15	0	0	0	1	0	0	14	0	0
홍성군	70	1	0	0	0	0	0	49	20	0
태안군	10	10	0	0	0	0	0	0	0	0

원자료 : 충청남도 수산물 업무자료, 자료 : 박준모 외(2015)

(4) 충남 수산물 수출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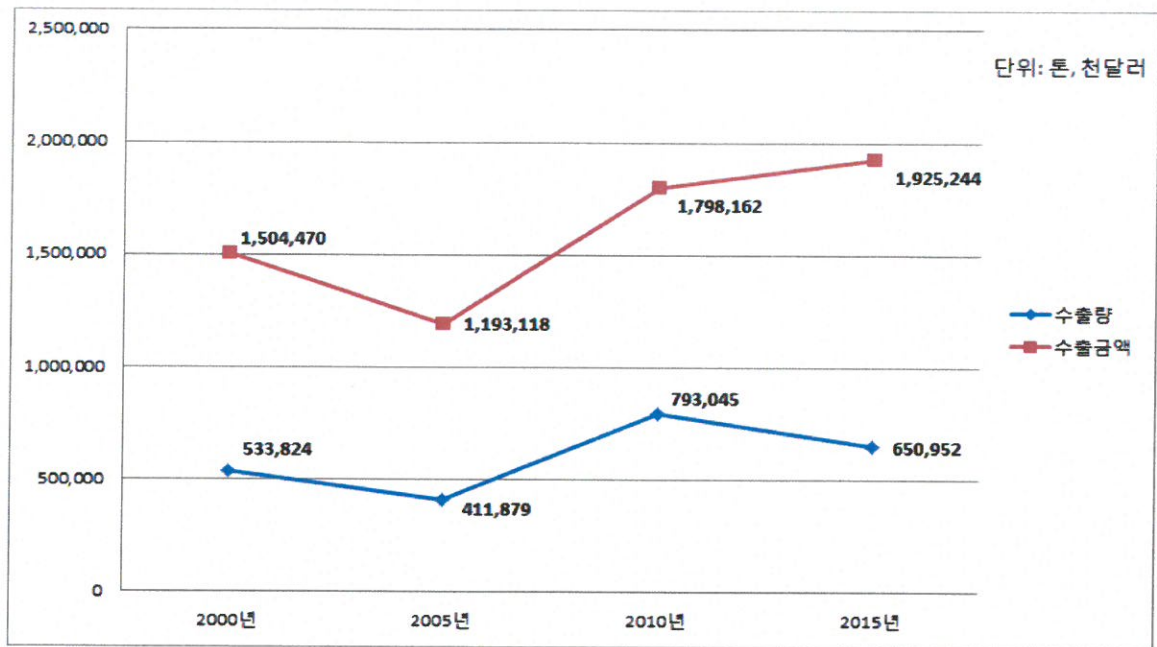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량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약 14만톤 감소하였음<그림 13, 그림 14 참고>
 - 수입량(550만톤)이 수출량(65만톤)에 비하여 8.5배 더 많음
 - 수출입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중국 수출은 <표 7>과 같이 11만톤, 수입은 80만톤임(2015년 기준)
 - 금액 상으로 수출은 313,210천달러, 수입은 1,157,502천달러로 수입이 약 3.5배 많음

[표 7]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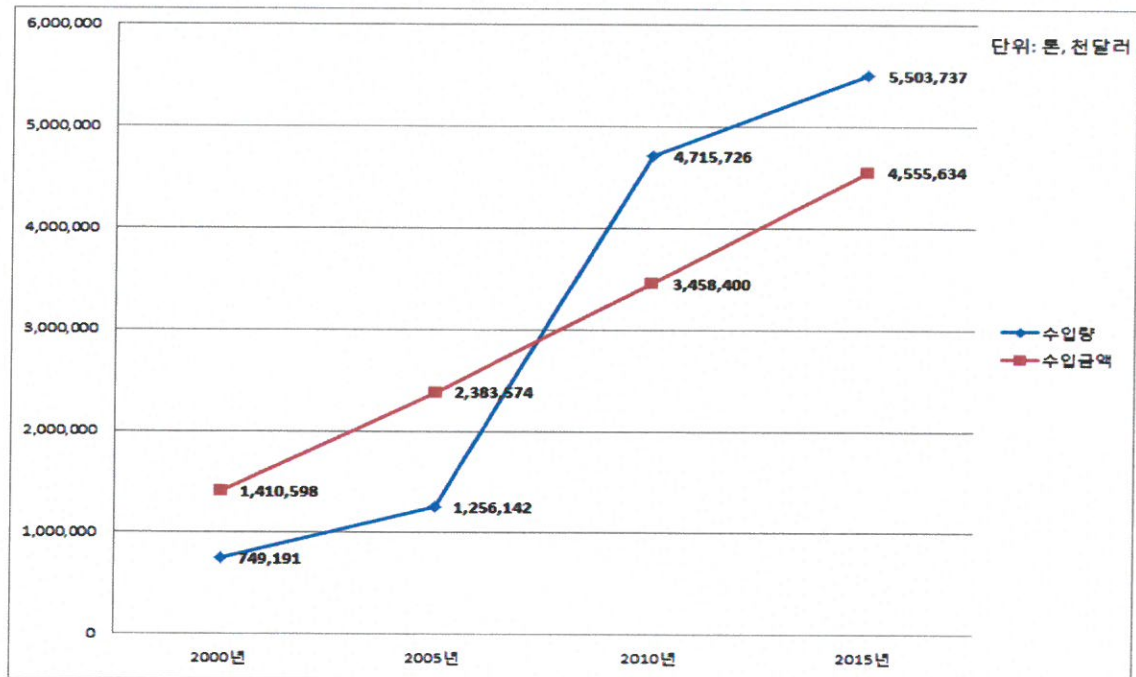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	143,181	370,446	119,530	309,264	119,123	313,210
수입	907,991	1,026,162	904,056	1,175,017	801,579	1,157,502

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그림 13]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량 및 수출금액



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그림 14]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 한·중 FTA 협상 체결에 따라 충남 주요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기회 확대됨
 - 한·중 FTA에서 해삼, 김, 미역, 전복 등 62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되어 해삼, 김, 전복 등 주요 품목의 중국수출 기대
 - 충남 주요 품목 중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바지락, 꽃게, 주꾸미는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약하고 굴, 김, 해삼은 수출특화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가능 <표 8 참고>
 - 중국 산 바지락, 굴, 김, 꽃게는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표 8] 충남 주요 품종의 경쟁력 비교

품목명	TSI(무역특화지수)			MCA(시장비교우위지수)	
	지수	수출입특화	경쟁력지표	지수	시장경쟁력
바지락	-1.00	완전수입특화	매우 약함	3.63	중국산 경쟁력 있음
굴	0.56	수출특화	매우 강함	1.16	중국산 경쟁력 있음
김	0.98	수출특화	매우 강함	1.62	중국산 경쟁력 있음
해삼	0.99	수출특화	매우 강함	0.05	중국산 경쟁력 없음
꽃게	-0.72	수입특화	매우 약함	2.81	중국산 경쟁력 있음
주꾸미	-0.98	수입특화	매우약함	0.22	중국산 경쟁력 없음

주1: TSI(무역특화지수)는 특정품목의 TSI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임. 0이면 수출입규모가 같으며, 1은 완전수출특화, -1은 완전수입특화임. 경쟁력지표는 $0 \leq TSI \leq 1$ 이면 경쟁력이 강하고, 특히 $0.5 \leq TSI \leq 1$ 이면 매우 강함. 반대로 $-1 \leq TSI \leq 0$ 이면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1 \leq TSI \leq -0.5$ 이면 매우 약함(전형진 외, 2011)

주2: MCA가 1보다 크면 중국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함.

자료: 김중화(2013)

- 충남의 주요 수산물 중 전국대비 생산량이 높은 것은 바지락, 해삼, 꽃게, 주꾸미 등으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내수 및 수출용으로 육성할 필요 있음<표 9 참고>
 - 전국대비 생산비중은 낮으나 충남 산으로서 충분한 네임밸류가 있는 김, 낙지, 멸치, 전어 등도 전략 품종으로 육성 필요
 - 특히, 김은 조미김, 스낵김으로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성장 가능성 높음

[표 9] 충남 주요 수산물의 한중 FTA 영향 비교

품목명	생산량(톤)			생산금액(백만원)			관세율 (%)	한중FTA 타결내용 및 영향
	전국	충남	전국 대비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대비 충남		
바지락	20,127	10,223	50.8%	55,180	27,107	49.1%	20%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으로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나, 현재도 중국 수입량이 많기에 수입량 증가 예상
굴	303,731	9,876	3.3%	225,125	13,552	6.0%	20%	(냉장, 염장)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감축. 현재 20% 수준이나 향후 2% 내에서 감축
김	397,872	38,558	9.7%	308,377	27,085	8.8%	10~20%	(조미, 건조)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감축. 현재 10~20% 수준이나 향후 2% 내에서 감축
해삼	2,148	614	28.6%	27,606	9,091	32.9%	20%	(활, 신선, 냉장) 15년내에 관세 철폐, 중국은 즉시 철폐로 한국에 유리
전복	9,147	76	0.9%	309,579	3,153	1.0%	20%	(조제, 기타냉동) 양허제외, 중국은 즉시 철폐로 한국에 유리
꽃게	25,661	10,789	42.0%	261,206	111,883	42.8%	20%	(활, 냉장) 양허제외, (냉동)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감축. (냉동) 현재 14% 수준이나 향후 1%내에서 감축되어 13.86% 예상
주꾸미	2,530	1,531	60.5%	47,143	30,008	63.7%	20%	20년 내에 관세 철폐되나, 기존에 수입량이 많아서 큰 영향 없음. 단 수입량 증가 예상
낙지	5,328	381	7.15%	154,702	10,045	6.5%	20%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으로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나, 현재도 중국 수입량이 많기에 수입량 증가 예상
멸치	220,954	26,824	12.1%	353,950	60,721	17.2%	20%	(건) 양허제외 품목으로 시장에 큰 영향 없음
넙치	46,196	1,600	3.5%	443,788	13,479	3.0%	10~20%	(활, 냉동) 양허제외 품목으로 시장에 큰 영향 없음
조피볼락	26,978	3,176	11.8%	226,915	31,716	14.0%	10%	(냉동) 양허제외 품목으로 시장에 큰 영향 없음
전어	8,875	463	5.2%	24,088	3,076	12.8%	10%	20년 내에 관세 철폐되어 수입량 증가 예상

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을 참고하여 작성

2) 진단 및 대응방안

(1)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진단

- ◎ 충남은 어업가구 전국 2위, 어업인구 전국 3위이나, 어업 생산량은 전국 6위, 생산금액은 전국 6위에 랭크되어 있음
 - 어업인구는 많으나, 어업세력 또는 규모 등에서는 전남, 경남, 경북에 비해 순위 낮음
 - 충남 어업은 일반해면어업의 비중이 약 61%로 천해양식어업 36%보다 높음
- ◎ 충남 연안 시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성인남녀성비 낮음
 - 충남 연안 시군의 고령화율은 16.04%로 전국보다 약 4% 높고, 성인남녀성비는 98.26%로 전국보다 낮음
 - 즉 고령자, 여성이 많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음
- ◎ 충남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지 않고, 대천항에 양식 수산물 중심의 유사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충남 수산물은 계통출하량 58.4%, 비계통출하량 41.6%로 비계통출하량이 높은 편임
 - 실질적으로는 통계치보다 비계통출하량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 충남에는 수협 회원조합 7개소에 총 18개소의 산지위판장 및 시설이 있음
 - 산지위판장은 전남, 경남, 경북, 부산, 제주에 이어 전국 6위
 - 충남 지역조합의 위판 실적은 전국순위로 보령수협(13위), 서천서부수협(20위), 서산수협(27위), 서천군수협(42위), 안면도수협(45위), 대천서부수협(50위), 태안남부수협(65위)에 랭크
 - 충남의 산지위판장 및 시설의 규모, 위판량 등은 전국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함

- 충남의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전국 7위에 랭크
 - 경남, 부산, 전남, 경북, 경기, 강원에 비해 수산가공산업 규모가 적음
 - 전국대비 비율은 약 2%대에 불과
- 충남은 한중 FTA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출용으로 해삼, 김, 굴 등에 대한 전략적 육성 필요
 - 내수용으로 바지락, 멸치, 낙지, 전어 등도 육성 필요
- 충남에서는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식생활교육 등 소비정책 전무

(2) 충남의 대응방안 및 SWOT 분석

-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진단내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하면 <표 10>과 같음

[표 10]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 진단 및 대응방안

구분	진 단	대응방안
일반 사항	인구규모에 비해 어업세력 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양식품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 필요 • 인공어초, 해중림, 자율관리어업 등을 통한 수산자원회복 및 보호 노력 지속 • 지역 여건 및 기후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 • 연안 시군 귀촌인의 귀어 장려 정책 추진
	연안 시군의 고령화 및 여성비율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 여성 중심의 수산정책 필요
유통	비계통 출하량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통 출하량을 계통출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
	도매시장 없고, 유사도매시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천항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상대적으로 산지위판장 위판량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위판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필요 • 충남도 차원의 거점 산지위판장 지정 및 집중 육성 필요
가공	수산가공산업의 규모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수산가공품의 품목 다변화 필요 • 전략 수산가공품 지정 및 지원시설 필요
수출	한중 FTA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삼, 전복, 김 등 주요 품종에 대한 수출전략화 필요 • 대중국 수출을 위한 품종별 산지조직화 필요
기타	소비정책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 중심의 향토식품 개발 •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식생활 교육 강화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모색 필요

●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SWOT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아스식 해안, 넓은 갯벌의 천혜 자연환경 • 안면도, 대천항, 무창포 등 관광자원 풍부 • 다양하고 신선한 서해안어종 보유 •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소비권 시장과 인접 • 광천 김, 광천젓갈, 어리굴젓 등 수산가공식품의 높은 인지도 • 중국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 해삼, 김 등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 보유 • 수산가공산업, 6차산업화에 인적 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 심화 • 상대적으로 낮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량 •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통·가공·수출 시설 • 관습화된 유통망으로 새로운 유통채널 도입 제한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로 부족 • 지역 수산업의 정책데이터 부족 • 1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융·복합산업화 제한 • 어업 생산비용 증가 및 어선노후화 심화 • 지속적인 어로인력 확보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서산 대천항 - 중국 용안항 간의 항로 개설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 • 수산업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 및 정부 지원 확대 •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서 수산물의 인지도 향상 • 국내 소비자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충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및 해양생태계 교란 • 중국 불법어업 심화 및 남획 • 해양사고 발생 및 오염원 확대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수산물과의 경쟁 심화

1) 비전 및 목표

◎ 기본방향

- 기존 생산중심의 수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수산산업의 가치 창출
-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정책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이 태동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기반 확대
- 지역 수산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통구조 및 진취적인 수출정책 추진
- 지역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육성
- 어업·어촌 6차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산업화 추진

◎ 비 전 : 지역 수산산업의 가치 창출 및 미래산업화

- 단순히 생산에 머무르는 수산업이 아닌 유통, 가공, 수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수산산업의 가치 재발견
- 미래지향적인 지역 수산산업 육성

◎ 목 표 :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궁극적으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으로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바, 이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 산업의 넓은 의미에서 수산산업에 포괄되는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수산산업이라는 용어 사용

● 추진전략

-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 광역지자체로서 실현 가능한 유통정책을 통한 어업인이 주인되는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육성
- 진취적인 해외시장 공략 : 수동적인 수출정책이 아닌 능동적인 정책추진으로 진취적인 해외시장 공략
- 가치있는 수산소비 촉진 : 지역 수산물의 가치를 도민에게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그림 15] 충남 수산산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2) 실행사업⁵⁾

(1)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산지유통계획 수립

- ▶ 필요성 : 충남 “3농혁신”의 주요과제로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육성이 포함
되어 있으나 생산량 증대 외 종합적인 산지유통계획 미수립
- ▶ 사업기간 : 단기
- ▶ 주요내용
 - 수산물 내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 4대 명품 수산물에 대한 산지조직 육성 방안 모색
 - 국내 유통채널 재점검 및 내수 확대 방안 모색
 - 국내 소비촉진 및 마케팅 강화 방안 모색
 - 대중국·대일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

● 바지락의 광역 산지유통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 ▶ 필요성 : 바지락의 주산지는 충남 연안 시·군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광역단위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 ▶ 사업기간 : 중기
 - 바지락은 계통출하보다 각 어촌계의 사매가 대부분이고, 지역별로 품질차이도 발생하므로 단기적에 광역 브랜드화 어려움
- ▶ 주요내용
 - 기존 비계통 출하에 의존하던 유통구조를 계통출하로 전환하여 시장경쟁력 확보
 - 내수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등급화 및 규격 균일화 추진
 - 어촌계 연합 중심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시장경쟁력 확보
 - 대규모 산지보다는 소규모산지의 연합형태로 추진
 - 바지락 요리 개발, 바지락 축제, 바지락 체험 등 어업외소득 향상 장려

5) 조영재 외(2014), 강마야 외(2015)를 참고하여 작성. 사업기간은 단기(5년 이내), 중기(6~10년)로 제시

● 수산물 산지유통센터(FPC) 설립

- ▶ 필요성 : 지역 수산물을 집적하고 전처리, 냉동보관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통한 충남 수산물의 시장경쟁력 확보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계통출하 수산물에 대하여 산지에서 집적하여 전처리, 가공 등을 거쳐 대형 소비처로 공급할 수 있는 FPC 조성
 - 중규모(사업비 150억원)로 추진하여 서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FPC로 육성
 - 꽃게, 멸치 등 서해안어종을 중심으로 산지 집적 및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향후 수산물 광역브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대천항 유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 필요성 : 지역에 제대로 된 도매시장이 없으므로 현재 지자체장에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사도매시장을 관광형 소비지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사업기간 : 중기
 - ▶ 추진내용
 - 현재 대천항에서 형성된 양식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 시장으로 육성 방안 모색
 - 현재 유사도매시장의 형태를 관광형 소비지도매시장 형태로 전환발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 ※ 유사도매시장은 하남 미사리, 인천 연안부두, 부산 민락동, 대천항 등 4개소 운영 중

● Local seafood 및 옴니채널 확대

- ▶ 필요성 :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옴니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국가 식품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 관심도 높음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우선적으로 충남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지역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전국 내륙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충남 수산물 공급(제휴푸드 개념 적극 사용)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전개
- 충남 농수산물 통합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과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결한 옴니채널 (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 확대

(2)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 해삼산업 클러스터 구축

- ▶ 필요성 : 중화권에서 큰 인기가 있는 해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금산인삼과의 연계를 통한 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 사업기간 : 중기
- ▶ 추진내용
 - 태안, 보령 인근을 해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종묘 및 중간육성, 양식, 가공 및 유통, R&D 등 해삼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확충 및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
 - 대중국 및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김산업 광역 클러스터 구축

- ▶ 필요성 : 주요 원초김, 조미김 산지로서의 충남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원초김-조미김 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 ▶ 사업기간 : 중기
- ▶ 추진내용
 - 원초김, 조미김 산지로서 서천, 보령, 홍성의 위상 제고 및 광역 클러스터 구축
 - 3개 시군을 잇는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 충남 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충남 산 김 및 김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 포지셔닝 분석 및 판로 확대방안 모색

◎ 지역 향토발효식품산업 및 향토요리 육성

- ▶ 필요성 : 지역의 다양한 향토발효식품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서산 어리굴젓, 광천 새우젓, 논산 강경젓갈 등 충남만이 갖고 있는 지역 향토 발효식품(젓갈)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 마련
 - 충남 3대 젓갈의 스토리텔링, 젓갈을 이용한 향토요리 개발, 가공시설지원, 홍보·마케팅 강화
 - 시·군별로 잠재되어 있는 우럭젓국, 계국지, 향토꽃게장 등 향토요리를 발굴·개발하여 보급 및 확산
 - “충남 수산물 향토요리 경진대회”, “충남 수산물 향토요리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
 - 학교급식용 향토요리 개발, 향토요리 레시피 공개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모색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수산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 ▶ 필요성 :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 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인증을 통하여 지역 6차산업화 경쟁력 확보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지역별로 유망한 수산가공업체를 발굴하여 산지가공센터 설립 지원
 - 품질 및 위생시설 지원, 각종 인증제도 편입 지원 등
 - 기존의 어촌마을 중심의 6차산업화에서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로 전환
 - 지역 수산가공업체에 대한 인증제 실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 블루바이오산업 육성 및 벤처벨리 조성⁶⁾

- ▶ 필요성 : 미래 먹거리인 해양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 집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기간 : 중기
- ▶ 추진내용
 -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초, 갯벌자원, 수산자원 등을 활용하여 블루바이오(수산바이오) 산업 육성
 - 수산가공식품산업에서 벗어나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등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산업으로 육성
 - 1차 수산물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성 소재, 형질전환 수산물, 식품 첨가물, 줄기세포, 백신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루바이오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블루바이오 벤처벨리” 조성

(3) 진취적인 해외시장 공략

● 충남 김제품의 수출 브랜드화

- ▶ 필요성 : 충남의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수출 경쟁력 강화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내수 브랜드(광천 김, 대천 김, 서천 김)를 유치하면서 “수출 브랜드” 개발을 통한 수출시장 진출
 - 조미김, 스낵김 중심의 수출 브랜드 육성
 - 대중국 및 중화권 시장진출의 거점 브랜드로 육성
 - 김 제조업체 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수출용 해삼전복 산지로서의 지역브랜드 강화

- ▶ 필요성 : 대 중국 해삼 및 전복 수출산지로서의 역량 강화. 특히, 전복의 경

6) 일반적으로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그린바이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 연구는 수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블루바이오”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

우 수출용 전복으로서 전략적 접근 필요

▶ 사업기간 : 단기

▶ 추진내용

- 국내 최고 품질의 해삼 산지로서의 위상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기존 국내 최대 전복산지로서 완도의 위상을 인정하고, 대중국 수출 전복의 산지로서 태안, 보령 위상 강화
- 해삼전복 종묘생산, 중간육성, 양식 및 가공, 유통 및 수출 등 수직계열화
- 국내 유력 해삼전복 산지인 태안, 보령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 모색
- “태안전복”, “보령해삼”, “태보해삼전복” 등 네이밍 개발을 통한 홍보·프로모션 전개

◎ 수산물 수출전문 산지조직 육성

▶ 필요성 : 지역 어업인의 수산물 수출전문 산지조직화를 통하여 해외시장의 체계적·전략적 공동대응 필요

▶ 사업기간 : 단기

▶ 추진내용

- 해삼, 김,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과 관련하여 수출전문 산지조직 육성
-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각 경영체의 규모와 형태, 품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지조직 육성
- 해외시장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공동대응하고, 품질 향상 및 규격 균일화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육성
- 대중국, 할랄(HALAL) 등에 공동으로 대응체계 구축
- 충남 수산물 수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품목별 수출 브랜드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충남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운영

▶ 필요성 : 충남 수산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센터 설립·운영 필요

▶ 사업기간 : 중기

▶ 추진내용

- 충남 수산물의 수출지원, 대외홍보,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민·관 합동 수출전문 마케팅팀 운영을 통한 대중국, 대일본, 중화권 및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지원
- 해수부, aT, 수협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모색
- 수산물 수출전문 산지조직에 대한 행정, 교육, 정보 등 지원

◎ 환황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사업

- ▶ 필요성 : 현재 중국 산둥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전방위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도모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충남과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산둥성과의 전략적 MOU 체결
 - 중국의 불법어업을 자제시키고, 충남 수산물의 중국 내 수출 교두보 마련
 - 양 지자체 간의 민·관 인적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공동행사 개최
 - 미래 어업인 세대의 상호방문을 통한 양국의 선진 어업기술 습득

(4) 가치있는 수산소비 촉진

◎ 충청남도 어촌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추진

- ▶ 필요성 : 어촌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소득창출 및 국가도 사업의 참여 유도
- ▶ 사업기간 : 중기
- ▶ 추진내용
 - 충남만의 독창적인 어촌문화 형성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 어촌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어촌마을이 아닌 주민소득이 낮고 역량이 떨어지는 어촌마을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 어업·어촌 6차산업화 관점에서 생산, 가공, 유통·관광의 융복합화 추진

◎ 외식업체 Local seafood “참바다”제도 운영

- ▶ 필요성 : 지역 외식업체 및 기업에게 지역 수산물 이용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지역 외식업체가 충남 산 수산물을 사용할 때 인증해 주는 “참바다” 제도 운영
 - 지역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지역 수산물에 대한 신뢰 형성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미더유” 제도와 연계 검토

◎ 여성어업인 주도의 “어촌감성” 사업 추진

- ▶ 필요성 : 지역 어업·어촌 문화, 수산물 식문화 등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충남 고유의 어업·어촌문화, 수산물 식문화, 어촌의 자연경관 등을 대외로 홍보하는 “어촌감성” 정책 추진
 - “어촌감성” 정책 추진주체로 여성어업인 조직 육성 및 역할 부여
 - 충남 어업·어촌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요리경진대회 등 개최
 - 여성어업인 소득 창출 기회 제공 및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의 사회참여 유도

◎ 어촌사랑운동으로 “다시 찾는 충남어촌”사업 추진

- ▶ 필요성 : 국민 및 도민의 우리지역 어촌사랑운동 전개를 통한 아름다운 충남 어촌의 이미지 제고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지역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요리 개발, 어촌걷기 대회, 해양쓰레기 수거대회, 어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지역 이벤트 개최
 - 지역 기업과 여성어업인 조직이 연계한 “어촌감성” 사업 추진
 - 지역 내 수산물 축제 소개 브로셔 발간 및 공동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 중국 요우커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어촌민박(Blue tourism)”제도 운영

● 전국 최초 Local seafood 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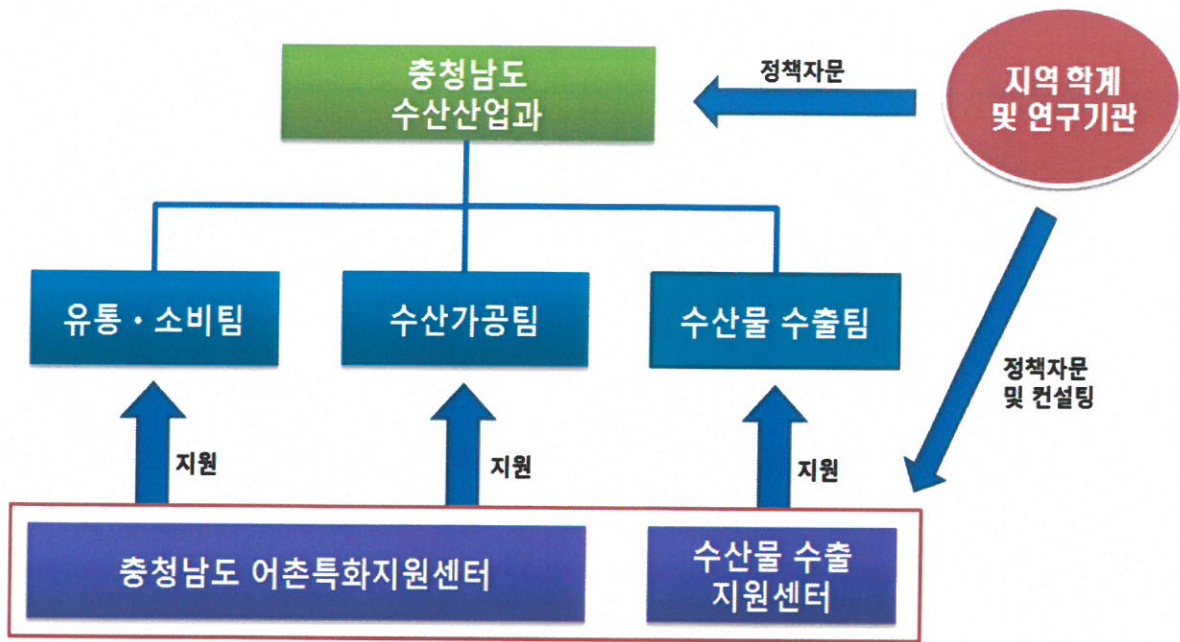
- ▶ 필요성 : 현재까지 로컬푸드는 주로 농업·농촌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어업·어촌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통한 이니셔티브 확보
- ▶ 사업기간 : 단기
- ▶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에 “수요일에 수산물을 먹읍시다”, “어식백세”에 버금가는 충남만의 지역 수산물 소비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 개발
 - 로컬푸드를 수산물로 확대하는 “Local seafood” 운동을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방안 모색

3) 지원조직체계

- 수산산업 분야(유통, 가공, 수출, 소비 등)는 전문성이 강조되므로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내에 “(가칭) 수산산업과” 신설 필요
 - 현재 수산과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자 1인이 타 업무와 병행하면서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
 - 수산산업은 어업·어촌 분야의 전방위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므로 전문적인 인력 육성 및 전담팀 구성이 필수적임
 - 참고로 농정국에서는 2013년 7월 “농산물 유통과”를 신설하여 농업 분야에서 해당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향후 수산물·가공식품의 대 중국 수출 증대, 해양·수산 관련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고려했을 때 “(가칭) 수산산업과” 신설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수산산업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필요
 - 수산산업 분야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후방 연계가 강하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지원조직 필요
 -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지역 학계 및 연구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필요
 - “어촌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소비, 수산가공에 업무지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수산물 수출 업무지원⁷⁾

7) 필요 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는 통합 운영 가능



※ 필요 시 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그림 16] 충남 수산산업 육성지원체계

-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전통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 검토 및 현황 분석,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 ◎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은 어업가구 전국 2위, 어업인구 전국 3위이나, 어업 생산량은 전국 6위, 생산금액은 전국 6위 랭크
 - 충남 연안 사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성인남녀성비 낮음
 - 충남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없으며 대천항에 양식 수산물 중심의 유사도매시장 형성
 - 충남에는 수협 회원조합 7개소에 총 18개소의 산지위판장 및 시설 위치
 - 충남의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전국 7위 랭크
 - 대중국 수출용으로 해삼, 김, 굴 등에 대한 전략적 육성 필요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 전무
- ◎ 위의 현황 및 진단을 바탕으로 수산산업으로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비전 : 지역 수산산업의 가치 창출 및 미래산업화
 - 목표 :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전략 :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진취적인 해외시장 공략, 가치있는 수산소비 촉진

- 본 연구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나, 시간·공간적 제약, 예산·제약 등으로 지역 수산업의 유통·가공·수출 실태를 기존 문헌 및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하였음.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실태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통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 김종화(2013),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조영재 외(2014),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충청남도.
- 강마야 외(2015),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충청남도.
- 강길모 외(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 충청남도.
- 김성일 외(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충청남도.
- 박진규 외(2015), “산지위판장 위판과정 개선 방안”, 기획연구 2015-01, 수산경제연구원.
- 박준모 외(2015), “수협 중심의 수산물 산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기획연구 2015-03, 수산경제연구원.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업무자료, 2014.
- 통계청,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각 년도.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년도.
- 충청남도, 2016년 충청남도 수산현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각 년도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